

미국과 캐나다 노인밀집도시의 노인주거관련

사회적지원에 관한 연구*

: 농촌지역 소도시를 중심으로

A Study on Social Supports for the Elderly Housing in Senior Concentrated Citie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 Focused on Small Cities along Rural Counties

한서대 노인복지학과

교 수 이 인 수**

Dept. of Elderly Welfare, Han-Seo Univ.

Professor : Lee, In-Soo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social supports for elderly housing and their residential lives in small cities along rural counties of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and suggest future implications for age-concentrated rural villages in Korea. In this study, five small and medium cities in non-metropolitan counties of California and Ontario province were visited and elderly residents and service experts were interviewed about their perceptions of community integrated social support networks for senior residences. The senior housing complexes were built due to influx of both metropolitan and rural residents seeking warm localities, traffic connections, business purposes in active production areas, and leisure attractions. There are five main social support networks for senior housing issues in these areas. First, the areas are claimed for senior zones and accordingly health industries are encouraged by local authorities. Second, the community is homogeneously constructed as a senior friendly environment and include features such as an RV park and mobile cottages. Third, senior-helping seniors are offered active work through golf-cluster active retirement communities. Fourth, traditional theme production camps are mobilized by the elderly workers. Lastly, an information system is maintained for screening volunteers and for senior abuse prevention. On the other hand, residential lives are occasionally negatively influenced by unbalanced concentrations of elderly facilities such as nursing stations and funeral homes. For the future of Korean rural elderly policies, suggestions are made as follows: first, an integrated urban and rural township that contains attractive places for early retiring people who seek a warm atmosphere in later life needs to be constructed. Second, an integrated model retirement village of urban and rural retirement life needs to be initiated as a measure of evaluating the adaptation process of movers in senior concentrated zones. Third, a cooperation system among governmental ministries needs to be formed with the long-term goal of establishing a traditional rural town of independent housing districts and medical facilities in rural areas. Fourth, productive and active lifestyles need to be maintained as the local community and government develop successful retirement rural villages, by limiting the expansion of nursing related facilities. Finally, generation integrated visiting welfare programs and services need to be further developed for the housing areas especially in the winter, when social integration and activity are relatively low.

▲주요어(Key Words) : 사회적지원망(social support networks), 이동주택단지(mobile home complex), 노노돌봄(senior helping senior), 통합시설(integrated facility), 활동적 성인 은퇴시설(active adult retirement community)

* 2010년도 한서대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성과물임

** 주저자·교신저자 : 이인수 (E-mail : lee1252@hanseo.ac.kr)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노인밀집도시는 65세이상 노인 인구비율이 구미 선진국 일반적 수준인 15~20%를 훨씬 초과하여 최대 60%까지 육박하는 지역으로서, 젊은 연령층이 이탈하고 고령층이 유입하는 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생겨나는 초고령화 된 구역을 지칭한다(Florida Senior Zone Association, 2008). 우리나라는 면단위 이하 농촌지역 경우 전국 노인인구비율의 2배 가까이 되면서, 나라 전체적으로는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로 접어든데 비해 농촌은 이미 심각한 고령사회(Aged Society)가 되었다(통계청, 2007). 예를 들어 강원도나 전라남북도 경우, 면지역 인구의 30~35%가 65세이상 노인인 경우는 물론 면단위로 세분할 경우 40%가 노인인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평화종합사회복지관, 2006). 농촌지역 초고령화 현상은 건강수준 향상에 의한 고령층 증가라는 사실외에도, 젊은 층이 도시로 이주하면서 문화근린 및 편의시설이 낙후된 농촌지역에 독립생활유지가 어려운 노인들만 남아 사회교류와 생활관리기반이 붕괴되는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노인인구비율이 높은 면과 리지역에 제공되는 복지서비스는 인근 중소도시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에서 제공되는 식사 및 생필품 제공, 말벗봉사, 이동목욕, 주거환경관리, 가정방문간호, 재가방문 요양서비스 등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전제로 한 요양보호서비스나 빈곤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최저생활보호의 범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주거환경관리, 목욕, 간호 및 물리치료 서비스는 요양보호대상 등급관정을 받은 허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생필품 배달이나 우애방문은 저소득 극빈노인을 주요 대상으로 하기에, 이러한 복지서비스 수혜대상은 전체 농촌노인의 30%정도에 그치고 있으며(보건복지가족부, 2009), 농촌지역에 고립된 대다수 노인들은 인간다운 문화혜택과 여가를 즐기지 못하는 등 삶의 질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열악한 조건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양순미·홍숙자, 2003; 양순미 등, 2007).

농촌지역의 심각한 고령화문제를 해소하는 방법 중 하나는 이러한 지역에 다양한 복지시설을 제공하고 관리함으로써 노인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활력 있는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즉, 노인인구가 급증하는 소도시 일부 구역에 지자체에서 다양한 복지서비스, 문화근린시설, 그리고 여가 프로그램 및 소일거리를 구비하여 복지전문가의 감독하에 효과적으로 유지함은 물론, 심지어는 노인들이 부업으로 몰두할 수 있는 생산 활동이나 자원봉사 프로그램까지도 지원하는 이른바 노인밀집구역으로서의 특별한 관리다(이인수,

2007). 그리고 이러한 노인구역으로서의 관리 중에서도 노인들이 살아가는 주거공간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노인인구비율이 높으면서도 생활조건이 열악한 농촌지역 노인들이 노년기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웃한 소도시 일부구역으로 집중되는 현상에 대처하여 지자체와 사회단체에서 이러한 노인밀집도시에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서비스와 활동프로그램을 지원한 모범적인 사례는 미국과 캐나다와 같은 선진국에서 많이 보고되고 있어 그 활용성에 대해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록키산맥 부근의 노인밀집 소도시 Paradise에는 80대 고령자들이 거주하며 원예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주택단지를 마련하고 이러한 프로그램관리를 위해 지역사회 교육기관과 복지관련 지자체 기관이 공동으로 서비스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Oak-Knoll Retirement Village, 2006).

한국도 앞으로 노인인구비율은 급증하지만 생활조건이 매우 열악한 농촌지역 노인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으로서, 농촌인근 노인인구가 집중된 소도시나 읍지역 일부에 전문적인 서비스를 전문 인력에 의해 지속적으로 제공할 여건이 구비된 안전한 한국형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노인밀집 구역에 집중적인 노인복지시설에서 쾌적하고 안전한 일상적 주거생활은 물론 여가활동과 사회적 교류, 경제활동 등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해 줄 수 있는 지원방안이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실천을 위해서는 오래전부터 그러한 기능이 정착된 선진국의 사례를 고찰하여 문제점을 짚어보고 한국적 현실에 맞는 조정안을 구상해 봄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비전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입각하여 본 연구에서는 선진국 농촌지역 인근 노인밀집 소도시에서 제공되고 있는 노인주거시설 사회적 지원 사례를 짚어보며 각 정책의 장단점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도입에 필요한 대안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많은 경제문화적 교류를 가지는 전형적 복지선진국인 미국과 캐나다의 농촌지역 인접 노인밀집 소도시를 방문하여 지자체 및 사회단체에서 제공하는 노인주거관련 사회적 지원 사례를 관련 전문가와의 직접면담에 의해 조사해 보고 한국의 미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연구목적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연구목적 1> 미국과 캐나다의 농촌지역 소도시 기관과 단체에서 양로시설과 노인아파트 등 노인주거시설에 제공하는 재정 및 행정적 지원 사례를 해당 시 노인주거시설 근무 실무자와의 직접면담에 영역별로 분류하여 조사함.

- <연구목적 2> 이러한 노인주거관련 사회적 지원이 시설관리, 시설내 노인복지서비스, 활동프로그램, 자원봉사기회, 그리고 의료기관과의 연계 등 전반적인 경영에 미치는 주요 장단점에 대해 위 전문가와의 직접 면담을 통해 고찰함.
- <연구목적 3> 이러한 고찰을 통해 향후 한국 농촌과 인근 읍지역에서 전개해야 할 효과적인 노인주거 관리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

II. 선행연구 고찰

1. 대도시에서 소도시로의 노년기 주거지 이동

노인비율증가 원인은 젊은층 이탈과 노년층 유입 두 가지로 볼 수 있으며, 노인밀집도시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 노인들이 외지로부터 유입되면서 노년층만의 독특한 집합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 특히 농촌지역에 인접한 소도시 경우 대도시로부터의 지속적인 노인인구유입이 절대적인 조건이다. 목표성취와 자녀양육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해오다가 자녀의 출가, 은퇴로 인한 소득 감소, 배우자사망, 사회적 역할 상실, 건강악화 등 다양한 생애사건을 접하는 노년기에 이르러 악화된 상황을 개선시키려는 노력중 하나로 고려하는 보편적인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주거지 이동이다. 최근 미국에서 주거지 이동을 경험한 60~87세 남녀노인 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Sergeant and Ekerdt, 2008), 건강악화로 인한 주거관리기능 저하, 특별한 믿음과 태도, 주거환경에의 부적응, 그리고 사회경제적 압력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 패러다임으로 작용하여 대도시를 벗어나 농촌지역 인근 소도시로 이주하는 노인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노년기 주거지 이동은 일상화된 적응과정이라고 주장하는 연구도 있는 바(Burkhauser et al., 1995), 미국인 경우 55세에서 64세까지 39%가 한번 이상의 주거지 이동을 경험한다고 하였으며 주로 살아온 집을 처분하거나 세를 놓아서 생긴 차액으로 생활비용을 충당하며 노후생활에 적합한 소도시에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에 적응하기 위함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50대 후반~60대 초반 연소노년기는 보호시설로의 입소를 위한 주거지 이동은 거의 없고 경제적 이유나 집 관리상의 편익, 혹은 새로운 활동 시작을 통한 기분전환이 가장 큰 이유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캐나다 은퇴자단체 경우, 터론토 같은 대도시와 비교하여 월세와 관리비 등 총 주거비용이 1/3 이하이며 부업기회도 많다는 점을 들어 55세~64세 연령층으로 하여금 대도시에서 100km정도 떨어진 농촌지역(rural county) 인근에 위치한 소도시로의 일시적 주거지 이동을 권장하고 있다(Canadi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 2008).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최근 연구에서도 노년기 주거지 이동 욕구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중소도시와 농촌에 거주하는 55~70세 노인중 64%는 저렴한 생활비와 새로운 노후생활에 대한 도전 혹은 고립된 농촌생활에서 벗어난 보다 안전한 곳에서의 새 출발을 위해 이사하고 싶어 하는 바(신동원, 2006), 이 연구를 토대로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이주 혹은 그 반대의 경우를 모두 합하여 보면 독립생활이 가능한 저연령 노년층 2/3 정도는 농촌에서 가깝고 친환경조건과 문화기반이 갖추어진 소도시로 이사하여 새로운 생활을 시작해 보고 싶은 욕구를 지녔다고 볼 수 있다. 즉, 노년기 주거지 이동은 매우 일상화된 보편타당한 욕구이며 새로운 활동이 가능한 50대 후반~60대 초반 연소노년층은 대도시로부터 농촌지역으로, 혹은 농촌으로부터 노인들이 점점 밀집하여 노인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노인밀집 소도시로 이주하여 다양한 활동을 시도해 보길 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노인밀집도시의 노인보호정책

농촌지역 인근 노인밀집 소도시에서의 생활은 또래집단의 집합문화가 더욱 매력적이 될 수 있다. 노년층은 다른 연령층보다도 더욱 군집을 형성하며 정서교류를 가지려는 성향이 강하기에, 여가활동이나 사회적 교류도 또래집단과의 군집에 의한 공동생활지역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 일정한 연령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비슷한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성장해 왔기 때문에 비슷한 태도, 가치, 전망을 가지게 되는데 노년기는 가지고 있는 공통의 특성과 사회문화적 요인 등에 의해 또래집단이 형성되며 그 집단 내부에서의 빈번한 상호작용을 통해 노년층 특유의 하위문화가 형성된다(이인수·김인중, 1999). 노년층, 그중에서도 비교적 활동의욕이 강한 연소노년층에게 같은 연령층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의 확보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더욱 절실한 문제일 수 있고, 동질 집단 사이의 친교를 가능하게 하는 공간은 공원, 문화근린시설, 복지서비스, 쇼핑센터 등이 잘 갖추어지고 젊은 연령층도 자유롭게 오가며 함께 어울려 사회적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이병록, 2005).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킨 선진국 사례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록키산맥에 위치한 소도시, 플로리다주 휴양 소도시 외곽, 그리고 캐나다 온타리오 주 호숫가 포도주 생산단지(Winery)에 인접한 소도시 교외지역은 인구 3~5만명 이하의 소도시 외곽에 관광특구,名山, 유명인의 生家, 거대한 고목 등이 있어 복고풍의 향수를 그리워하는 노인들이 많이 모이면서도 젊은 연령층과의 교류와 일자리 기회도 많다. 그런 이유로 인접한 산악지역이나 농촌, 혹은 San Francisco, Tampa, Toronto 등 대도시 중·고령층이 이주 정착하여 새로운 활동과 정서교류, 문화생활의 욕구를 잘 충족시킨다. 특히 교통정리, 주차안내,

관광안내, 지역 역사에 대한 설명, 포도주나 치즈 판매에 참여하며 활기찬 노후를 보내며 그런 지역은 학교나 어린이 보호시설이 적기에 사실상 자녀교육과 무관하며 스스로 운전할 수 있는 건강한 연령계층이 주류를 이루기에, 50~60대 중·고령층 사람들의 집합주거단지로 보편화 되고 있다(Elder Home Finders, 2009; Senior Outlook, 2009). 이러한 소도시 외곽지역은 대도시에 비해 교통량도 적고 범죄발생이 낮은 반면 중·고령층의 유입으로 인해 일정기간이 흐른 후 상대적으로 노인 인구비율이 높아지면서 노인을 배려한 다양한 사회적 조건이 형성된다. Weed市 경우, 록키산맥 산자락에 있는 Shasta산은 해발 3,000m 정도로서 삼각뿔 모양을 하며 봉우리에 만년설이 있고 산 중턱에 여러 오두막과 동굴과 온천이 있는데, 이러한 Shasta산 주변에서 생활하면서 그 산을 오르고 산속의 노천 온천을 즐기고 산중 오두막에서 기도하며 수양하는 것을 삶의 큰 보람으로 인식하는 노인들이 많아, 특히 노인생활시설에 있는 건강한 노인들 경우 셔틀버스로 주기적으로 Shasta산을 방문하여 산행과 삼림욕과 온천욕을 즐기고 오두막에서 기도하는 생활이 주요 일과 중 하나로 정착되었다. 그리고 노인들이 밀집된 지역이기에 고령인구비율이 특이하게 높다는 점을 감안한 지자체의 특별배려가 큰 장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노인인구비율이 매우 높기에 여러 가지 법 적용에 있어서도 융통성과 차별성을 부여하여, 노인들이 낭만적인 전원생활과 사교활동,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들과의 적절한 통합생활을 즐기도록 배려한다. 고령 운전자들이 많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노인들도 많다는 전제하에 교통경찰관과 지역사회 봉사자들이 공동으로 교통안내를 집중적으로 하고, 노인생활시설 입주자들이나 지역사회 주민과 어울려 바자회나 파티를 할 때 경찰관들이 사복을 입고 봉사활동과 질서유지를 동시에 한다던가, 시설주변에 가로등과 안내표시판 등 편의 안내시설을 집중적으로 배려하여 설치하고 관리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Weed City Chamber of Commerce, 2007).

캐나다 온타리오주 Clarkson市 경우, 호숫가 산책로가 잘 구비되어 있고 그 산책로를 따라 관광명소 포도주 단지과 치즈 공장이 있어 이곳을 찾는 농촌노인들이 인근주민들과 함께 운동도 즐기고 자신이 가진 영농경험을 활용하여 판매사원이나 생산과정 설명요원으로 일하며 일자리를 활용하고 있다(Ontario Association of Active Adult Life Style Retirement Community, 2006). 미국 캘리포니아주 록키산맥 부근의 소도시 Napa와 Paradise에는 부근 산간부락(village)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방문하여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 및 여가활동 서비스를 마련하고 이러한 프로그램관리를 위해 지역사회 교육기관과 복지관련 지자체 기관이 공동으로 서비스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근 마을을 관할하는 인구 10만 미만 소도시에 대규모 노인여가센터(Senior Citizen Center), 은퇴군인 활동센터(Legion Office), 소규모 임대형 농장(Allot-

ment Garden), 재가서비스 연계 관리센터(Home Service Delivery Passage Center), 원예교실(Horticulture Club), 그리고 포도주생산 참여프로그램(Winery Share Program)등이 있다. 그러한 프로그램들은 그 도시에 거주하는 노년층 뿐 아니라 인근 산악지대 노인들로 하여금 car pool이나 통근버스를 통해 소도시를 방문하여 농장을 운영하고 포도주 생산 및 판매 활동에 참여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또한 자신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소규모 전통식품 가공산업(예: 소형 치즈공장이나 잼공장)에 지분투자를 하게하며 컴퓨터교실 이용, 그리고 방문간호 서비스 연계 상담 등을 받도록 적극 권장하고 안내서비스를 제공한다(Oak-Knoll Retirement Village, 2006).

3. 노인주거선호와 사회적 지원

노인밀집도시에서 이루어지는 노인주거관련 사회적 지원은 노후의 주거선호와 이에 대한 적절한 지역사회 지원의 맥락에서 고찰해 볼 수 있다. 김영복(1999)의 연구에서는 노후 특별한 주거지선택에 대해서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더욱 호의적인 태도를 나타낸다고 하였는 바, 남편 사망 후 혼자 사는 고령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여성들이 노후의 대안으로서 노년층이 많이 모여 사는 집합주거단지를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노인을 연령에 따라 연소노인과 고령노인으로 구분하여 소비제품의 형태나 소비규모 등을 살펴보면 연령층에 따라 구매행동에 차이가 있는데, 주거형태에 대한 계획에서는 연령이 많은 노인일수록 단독주택보다는 서로 도우며 협력하는 그룹홈이나 노인복지주택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구식 대규모 노인집합주거단지의 경우 연령이 많은 고령자보다는 젊은 계층에서 선호도 혹은 수요도가 높게 나타났다(박용수, 2004).

노인의 가장 큰 관심거리는 건강의 유지이다. 이러한 점에서 노인의 구매행동은 건강상태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는다. 건강하지 못한 노인은 독립적인 생활 및 자신의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게 될 것이므로 심리적으로 불안하기에 건강에 문제가 있는 노인일수록 많은 노인들이 모여 살며 여가와 의료관리 서비스가 좋은 대규모 주거단지에 들어가고자 하는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영복, 1999). 또한 노인의 구매행동은 교육정도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심리적 행복감이 높으며, 교육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영향을 줌과 동시에 사회경제적 자원의 확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구매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교육수준은 부양유형에 대한 노인의 개인적 태도 및 가치에 영향을 주는데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독립심 및 개인주의적 가치를 내재화시키는 경향이 있어 자녀로부터의 부양기대가 적어지고 자녀와의 동거가능성이 감소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노인들끼리 대규모로 모여 사는 주거생활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박영옥, 2001; 박종천, 1999).

노인의 부정적 상황중 하나가 배우자의 사망이다. 사랑의 관계와 대인관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원천인 배우자를 잃음으로 말미암아 배우자로서의 역할이 상실되고 절망과 고통을 느끼게 된다. 더욱이 여자노인에게 배우자의 사망은 더욱 고통을 주는데 소득의 원천인 남편의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위협과 사회적 지위상실, 역할상실의 문제가 뒤따른다. 즉 남편의 사망으로 인한 가정 내 힘의 상실과 부인의 사망으로 가사일에 대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기에 배우자 상실은 심리적으로 외로움과 가사일 보조의 감소, 경제적 지위 저하 등과 관련되기 때문에 저렴한 노인복지주택이나 공동생활가정을 선호하게 만든다(박재현, 2000:65).

이렇듯 노년기 정서와 건강관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노인주거시설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삶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지역사회로부터의 다양한 지원 속에 발전하며 상호작용의 관계에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설과 지역사회의 상호작용은 농촌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이병록, 2005; 신동원, 2006), 노인주거시설의 입지조건에 따른 시설-지역사회관계에 있어서 시설생활자의 지역사회교류는 농어촌지역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으며, 도시지역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농어촌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객관적인 측면에서 사회복지시설과 교류할 수 있는 조건이 취약하지만, 지역 주민들 간에 상호부조 등 전통적인 가치관이 강하게 남아 있어 그만큼 사회복지관련 시설에 대한 지원과 협력자로서의 역할이 강할 수도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년기 주거지이동을 통한 노인전용 주거공간으로의 입소도 그 지역의 사회적 지원을 권장하는 특별한 정책에 의해서 더욱 가속화될 수 있음이 입증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 경우, 경제적인 이유로 대도시로부터 농촌으로 이주해 온 노인들이 주거비용을 최소화하고 부업활동을 하며 재기할 수 있도록 부유층 노인주거단지에 인접한 저비용 소형주거단지에서의 정착을 지원하는 등 구체화된 노인주거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대도시에서 주택 모기지(mortgage)를 감당하지 못해 살던 집이 압류되면서, 농촌지역에 주거비용이 매우 저렴하고 특히 오렌지 농장과 노인촌락에서 시간제 노동 일자리가 보장된 오두막 단지로 60대부부가 함께 이주하여 복지기관과 공조하여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후원단체(예: 오렌지 농장 회사, 은퇴자 휴양단지 등)와 결연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이 경우 부유층이 밀집한 휴양단지에 인접한 소규모 주거공간에서 생활한다는 점이 고려되어 보호 대상으로 인식되어 종교기관과 봉사단체와의 유대를 통해 사회적 지지기반이 형성되고 어느 정도 소득이 보장되는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나타나고 있다(Florida Senior Zone Association, 2008; Association of Ontario Active Adult Life Style Retirement Community, 2006).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시기

본 연구에서는 2008년 7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 주, 그리고 캐나다 온타리오 주 농촌지역 인근 소도시에서 있는 통합형 노인생활시설(독립생활주거공간과 요양보호시설이 공존하는 대규모 단지)과 노인전용 아파트, 소형 주거단지를 방문하여 그곳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와 직접 면담하였다. 농촌지역 인근 소도시의 기준은 조사대상 주 은퇴자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 AARP, 2006; Canadi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 CARP, 2006), 그리고 노후를 보내는 장소(Aging in Place)에 관해 안내하는 노인 단체(Senior Resource, 2006)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대도시를 탈출하여 농촌과 전원지역(farm and pastoral county)에 살면서도 30분 이내에 문화생활과 쇼핑을 즐기기 위해 찾아갈 수 있는 낭만적인 작은 도시(“..enjoying a pastoral life getting away from stressful metropolitan area, you can also touch a lovely small town or city within 30 minutes drive..”)』라는 내용의 문구로 인용된 곳으로 정하였다. 방문 조사한 소도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Weed, 플로리다주 Fort Myers와 Sun City Center, 캐나다 온타리오주 Wellington on the Lake와 Trenton 등 총 5개 지역이었다. 5개 지역 모두 등록된 거주자가 5만 이하의 소도시였으며 관찰 시점에서 선정한 노인구역(Senior Zone)이 있어 차량속도 시속 15km이내, 경찰관 상시 대기 등 노인보호와 관련된 복지서비스 시스템이 가동 중이었다.

2. 접근방법 및 조사항목

본 연구에서는 한국 4년제 대학 사회복지 관련분야 교수 1명과 박사과정생 2명 등 총 3명이 위 조사대상자와 영어로 면담을 하고 시청 자료실과 시립도서관에 보관된 각종 연보통계자료를 참고했으며 조사한 내용 중 직접면담은 비디오로 녹화한 뒤 영역별로 분류하여 한글로 재정리하였다. 사전에 조사대상지역 소재 상공회의소대표(Chamber of Commerce Director) 나 안내센터(information) 직원의 소개로 조사자와 대화를 나누기를 자원한 노인생활시설 관리직원을 여러 번 만나 인면이 익숙해진 상태에서 차후 다시 방문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보건복지부(2006)에서 노인 주거복지시설로 정의를 내린 3개 영역(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노인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하고 관리하기 위해 시와 사회단체(노인 단체, 자원봉사단체, YMCA등)에서 자체적으로 조례안이나 개발계획,

혹은 권장사항으로 제시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나 사업 중 주거시설 운영에 가장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항목은 무엇이며 그러한 정책 중 다소 미흡하여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하여 면담하였다. 조사는 위에 소개한 항목을 중심으로 질적 조사가 이루어 졌는데, 중앙이나 주정부에서 내려진 지침이 아니고 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 조례안(City Council Code)이나 개발계획안(City Development Amendmane Plan), 혹은 시와 노인단체 등에서 공동으로 기획 및 심의하여 권장하는 활동(Recommending Activities)으로서 관리되고 있는 노인주거관련 사회적 지원(Elderly Housing Social Supports) 중 이 지역에 가장 대표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 있으며 그러한 사업의 긍정적인 부분이나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하여 면담하였다. 조사는 위에 소개한 항목을 중심으로 질적 조사가 이루어 졌는데, 시의회 자료실에 비치되어 공개된 시 홍보책자에 『우리 시에서는 노인주거를 위해 이런 일을 추진합니다(We offer special policies and recommendations for senior housing)』라고 소개된 프로젝트나 사업 항목에 관하여 질문하였으며 질문이 획일적으로 표준화된 문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대략 “이 도시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홍보책자에 소개된 노인주거관련 지원 중 노인들에게 가장 유익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

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즉 그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그러한 사업 중 불편하기에 개선되어야 하는 단점이나 취약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며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그리고 답변에 있어 구체적인 지자체 정책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은 근거자료(예:시설에 보관중인 과거 공문 사본 등)를 제시하도록 부탁하여 확인하고 그 확인내용을 조사대상(<표 1> 참조) 및 결과 부분에서 추가로 기술하였다.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은 특별한 형식 없이 자유로운 구술을 정리한 질적 연구로 정리되었으며, 진술내용 중 비슷한 영역의 동거나 장단점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들을 범주화하여 각 범주 내 유사한 내용들은 그중 가장 자세하고 이해하기 쉬운 것을 추려서 표준어 문장으로 번역하였다. 특히, 녹화된 진술 중 질문과 무관한 내용이 다소 혼합되고 질문문서(주요정책, 장점, 단점)와 다른 순서로 답한 경우가 많았다. 이 경우 진술을 연구문제와 부합하는 순서에 따라 재구성하고 또한 그 재구성한 내용을 영역별로 분류하여 정리하는 작업이 추가로 이루어지고, 답변들을 광범위하게 분류하며 그 각 광범위 영역을 다시 2-3개씩의 중간규모 하부영역으로 세분하여 그 세분된 하부영역내에 각 인용사례들을 정리하였다.

<표 1> 조사대상 지역과 면담자 특성

지역	단지명	소도시와 단지 개요 및 조사대상자
미국 캘리포니아 및 플로리다 주	Weed市 노인주거단지 영업책임자	Weed市는 2007년 1월 현재 전체인구 3천명의 소규모 도시로서 캘리포니아 주 록키산맥속에 고립된 해발 1천m 고도의 농촌형 소도시임. 공항이 있는 Redding시로부터 100km정도 떨어져 있으며 1960년대까지는 록키산맥에서 생산된 대형 목재와 암석을 1차 가공하는 공장지대였으나 목재 및 석가공 산업이 위축되면서 젊은 층은 다른 도시로 이주하고 주변 산간부락 중년층과 노년층이 이주하여 생활하면서 점진적으로 노인밀집구역이 됨. 소규모 villa형 노인주택이 점진적으로 증축과정을 거치면서 현재 약 500명 규모의 시설로 성장한 Weed Retirement Village 영업책임자(Marketing Director)와 면담함.
	Fort Myers市	플로리다주 중서부 지역 인구 5만명 정도의 바닷가 소도시. 미국의 발명왕 에디슨이 태어나서 자란 관광명소 휴양도시로서 교외에는 섬 전체가 노인생활시설이며 35,000명 노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Shell Point라는 대규모 시설이 있음. 전형적인 아열대 섬에 골프장과 승마장, 빌라, 아파트, 요양원, 병원등 도시 기능을 자체적으로 다 갖춘 거대한 통합형 노인생활시설임. 이 시설 영업책임자 1명과 사회사업가 1명이 면담에 응함.
캐나다 온타리오 주	플로리다주 Sun City Center市. 레저 및 노인휴양단지 부설 오두막 단지	Sun City Center는 플로리다주 중북부에 위치하고 2007년 1월 현재 인구 18,000명의 소도시임. 공항이 있는 Tampa로부터 100 km 거리에 있고 주변에 오렌지 농장과 골프장들이 많은 전형적 전원지역임. 1961년에 Del Webb社가 개발한 대규모 노인주거단지 및 부속 골프장이 있고 그 시설과 골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위한 오두막 단지가 1970년대에 지어졌음. 노인총력 영업사원 1명과 오두막 단지 관리인 1명이 면담조사에 응함.
	Wellington On the Lake市 Mobile Cottage	Ontario호숫가에 위치한 인구 1,500명의 소도시 Wellington on the Lake Village에 1980년대 말에 설립되어 55세~74세 건강한 중고령자 500여명이 거주하는 이동식 오두막 단지와 활동적 성인 휴양단지(Active Adult Life Style Retirement Community)를 방문하여 오두막단지 관리인 1명 및 휴양단지 영업책임자 1명과 면담함.
	Trenton 市	Ontario 호숫가에 위치한 인구 5만명 규모의 Trenton시에서 10km 정도 떨어진 여가차량 공원 주거구역(Trenton RV Park)을 방문하여 단지 관리인과 면담함.

IV. 결과 및 고찰

1. 노인구역 확대와 관련산업 육성

노인인구가 월등하게 많은 도시에서의 노인주거를 관리함에 있어 우선 지역주민, 복지기관, 외부 방문자들 모두가 거주 노인들을 배려하고 지원해야 함을 공개적으로 알리며 지켜야 할 사항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우선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대상 5개 소도시는 모두 노인주거를 관리하기 위해 시의회의 심의를 거친 조례안으로서 노인구역(Senior Zone)을 매우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이러한 조례안들의 안에서 노인들의 주거생활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사회적 지원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상가건물이 밀집한 곳 외 대부분 지역은 노인공동주택이나 양로시설이 있는 주변을 노인구역으로 설정하여 차량통행이나 소음발생을 제한하고 경찰관과 주민감시단 배치를 증대시키는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되는바 이러한 특성화된 지원상황을 영역별로 구체적인 특성과 개선되어야 할 취약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자 한다.

1) 보호구역 설정

본 연구조사대상 도시는 모두 노인구역(Senior Citizen Zone)을 시 의회 승인을 거친 조례안으로 확정하여 설정하였으며 그러한 노인구역관련 조례안은 시 의회 자료실에 공개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Weed City Chamber of Commerce, 2003-2006: Association of Ontario Active Adult Life Style Retirement Community, 2006). 노인구역은 노인인구비율이 매우 높고 초고령노인들을 위한 시설이나 서비스센터가 많아 특별한 관리를 필요로 한다는 대외선언적인 기능으로서, 재해나 사고로부터 노인들을 우선 보호하고 지역사회 주민과 기관 등 모든 자원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강력한 정책이다(Florida Senior Zone Association, 2008). 조사대상 도시는 모두 1970년대에 이미 노인구역을 선포하여 주정부 홍보자료에 명시하여 이곳을 찾는 차량에게 안전을 당부하는 표지판과 신호등을 설치함은 물론 경찰관과 노인시설 안전요원(Security)들이 노인들 통행이 잦은 장소와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활동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노인보호구역 설정은 노인들을 보호하는 긍정적 기능도 많지만 안전을 보장받았다는 과도한 믿음을 자아내어 오히려 방심하는 습관을 키우는 단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례 #1> 안전을 보장함과 동시에 약화시키는 양면성

노인 모습을 그려놓고 주의하라는 경고가 달린 표지판이 많아 트럭이나 콘테이너 같은 덩치 큰 차는 이곳에 들어오길 꺼리고 애들 데리고 여행하는 작은 승용차가

많이 들어와 우선은 장사 잘되고 화목한 분위기가 좋다. 하지만 그런 배려가 노인들로 하여금 방심하게 하여 이 도시를 무질서하게 만드는 단점도 있다. 차가 달려와도 알아서 서겠지 하는 마음으로 아무데서나 길을 건너는 노인이 많다. 우리가 뭘 하든 모두가 우리 노인을 위해 잘 참아 줄거라는 생각이 결국 노인들로 하여금 담배를 피며 횡단보도를 너무 천천히 건너고 차 다니는 길 안으로 들어와 걸어가게 만든다(Weed市 Retirement Village 영업부장 면담내용 요약정리).

2) 노인관련 보건산업 육성

노인들이 많은 구역임을 시 의회 의결을 거쳐 공식화하여 선언하는 것은 유료 복지서비스 기관이나 개인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복지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노인밀집구역은 주거지역에 노인인구가 현저히 많아 건물의 고도제한, 차량 속도제한, 주차장 확보, 노인보행자 전용 산책로 확보, 노인관련 사업 세금감면, 공공건물에 노인을 위한 별도의 라운지와 안전설비 강화 등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구역이다(Florida Senior Zone Association, 2008). 그렇게 요양시설, 재활시설, 주간보호소, 노인주택, 노인 여가공간, 심지어 장의사 등 노인관련 사업장이 세제혜택이나 부지확보 용이 등 권장책에 의해 부근에 유입되면서, 저렴하고 효과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받으려고 이곳으로 이주하는 노년층도 많아지는 등 노인복지기능상의 효과가 크다. 반면에, 관광객은 감소하고 지역 활력이 저하되며, 일반인 여가시설 개발이 저조하여 전반적인 사회적 다양성과 통합성이 크게 위축되는 것이 단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연령계층에 의한 사회적 통합이 저조하며 노인인구비율만 높기에 노인복지서비스에 필요한 청소년 자원봉사자 확보가 점점 힘들어지는 역기능이 나타나고 있다.

<사례 #2> 노인관련 편익시설 공동체(Consortium) 형성

이곳 노인주거단지 부근에 노인휴게실(Senior Center), 꽃과 나비 박물관, 모바일 홈 공원(Mobile Home park), 여가 차량 휴양공원(RV: Recreational Vehicle Park), 요양원, 노인 아파트 등이 가까이 밀집해 있고 포도주 공장과 식물원 등 가볼만한 유명한 명소들이 가까이 있어서 모두가 협동하는 공동체인 셈이다. 이곳에 계신 분들도 그곳을 찾아가다니며 유쾌한 일과시간을 보낼 수 있고 거기서 설명하는 자원봉사도 하고 가족들과 함께 오는 방문자가 많아 시설 주변도 활력이 있다. 시청의 조정아래 이 모든 당사자들이 공동체를 형성하여 함께 연구하고 개발하는 계획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유익하다(Weed市 Retirement Village와 Trenton市 RV park 영업책임자 면담내용 요약정리).

<사례 #3> 서비스전달은 효율적이지만 활력은 없다

요양원과 방문간호센터, 주간보호소와 노인복지센터가 생기면서 전문적인 노인복지서비스가 집중되어 편리하다. 노후에 한번 이곳에 정착하면 또 다른 서비스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다닐 필요 없이 한번 정착 후 모든 서비스가 가능한 효율적인 노후생활 도시가 되어간다. 하지만 노인들만 모여 사는 공동생활가정이나 요양시설만 늘어나고 원래부터 있던 사람들은 노인이 되어가니 주변에서 누가 아프거나 죽는 우울한 일들을 자주 접한다. 다양한 이벤트나 활동은 여름에만 몇 번 있고 나머지 계절은 우울한 일들과 노인들끼리만의 작은 행사만 있기에 매우 우울하고 위축된 날이 지속된다(Weed市 Retirement Village 영업부장과 Wellington on the Lake市 Villa 관리자 면담내용중 공통부분 요약정리).

2. 시설 이웃의 안정화

노인밀집도시가 형성되고 노인주거단지가 조성되면서 주거단지 주변 지역사회환경이 시설 노인들의 안락한 생활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주거단지가 지역사회의 중요한 편익시설로도 자리매김하여 상호작용이 활발해지도록 지자체와 주민들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은 주거시설 주변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이 되도록 시설, 주민, 그리고 시에서 공조하여 유해환경을 억제하고 입주노인과 주민들이 함께 도우며 살아가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고 있는 바, 이러한 특성화된 지원상황을 영역별로 구체적인 특성과 개선되어야 할 취약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자 한다.

1) 외부활동 관리

노인들이 자연스럽게 밀집된 지역에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우선 고령인구비율이 특이하게 높다는 점을 감안한 지자체의 특별배려 정책이 큰 장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노인인구비율이 매우 높기에 여러 가지 법 적용에 있어서도 융통성과 차별성을 부여하여, 노인 입주자들이 낭만적인 전원생활과 사교활동,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들과의 적절한 통합생활을 즐기도록 배려한다. 예를 들어 고령 운전자들이 많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노인들도 많다는 전제하에 교통 경찰관과 지역사회 봉사자들이 공동으로 교통안내를 집중적으로 하고, 노인생활 시설입주자나 지역사회 주민과 어울려 바자회나 파티를 할 때 경찰관들이 사복을 입고 봉사활동과 질서유지를 동시에 한다던가, 시설주변에 가로등과 안내표시판 등 편익 안내시설을 집중적으로 배려하여 설치하고 관리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즉, 노인생활시설 입소노인들이 외출하여 자유로운 활동을 하는데 있어 직원들이 일일이 동행하지 않아도 안전이 보장되도록 지자체가 지원하는 것이 바로 노인 자연밀집도시에 위치

한 주거시설의 큰 장점이 되는 것이다.

<사례 #4> 경찰관의 배려

고령 운전자가 너무 느리게 운전하여 다른 차들이 불편을 겪어도 경찰관이 웃으면서 경례하며 잘 운전하라고 인사 한다. 그리고 주차해서는 안 되는 곳에 주차하는 일, 길 안쪽으로 너무 들어와 주차시키고 운전석쪽 문을 오래 열어두는 일, 신호등을 위반 하는 일, 안전벨트를 안 매는 일 등등에 벌금을 부과하는 일을 억제하고 자세히 안내해 드리는 경찰들의 배려야말로 이 지역에서 노인들이 안전하게 생활하도록 배려해 주는 일이다(Weed市 Retirement Village 영업책임자 면담내용 요약정리).

2) 시설주변의 안정과 동질성 유지

노인밀집도시로 선정된 지역의 노인주거시설은 개개 시설의 관리감독 측면 뿐 아니라 시설 인근의 관광가치를 높이며 주거구역으로서의 안정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시청의 감독 뿐 아니라 지역주민과 관련 단체들의 지원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음이 고찰되고 있다. 즉, 시설을 중심으로 노인주거단지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고 노인밀집도시로서의 고유한 정체성이 유지되도록 시와 주민들의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오래된 노인주거단지를 중심으로 휴식공원(예: recreational park, natural park, memorial park), 노인아파트, 여가용 차량 생활공원(RV Park: Recreational Vehicle Park), 관광명소(tourism attractions)등등 다양한 휴양관련 시설이 함께 들어서도록 조정하는 정책으로서, 市와 광역지역(county) 도시개발 국에서 주택개발 회사와 지역주민, 그리고 노인단체 등과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Urban Plan등의 프로젝트 형식으로 추진된다. 이렇듯 도시개발의 일환으로서 지역 사회를 특성화 시켜나가는 방향으로의 정책은 재정지원, 근린 시설 정비, 시범타운 특구 조성의 지원, 그리고 이러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사회적 지원망(social support network) 구축이 진행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노인주거시설 입주노인의 여가활동에는 시설 외부와 의 다양한 교류가 절대적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시설내 토지는 물론 인접한 지역사회 공원을 연결하여 노인 원예치료 프로그램이나 유기농산물 가공단지등을 노인주거시설, 지역사회주민, 노인단체, 영농회사, 학교 등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시설노인들이 주축이 되어 골프, 자전거, 원예 전시회 등 매우 전문화된 스포츠와 원예프로그램 행사를 열어 시설노인들이 설명하고 주민들이 함께 행사를 주관하는 등 지역사회와 시설노인들이 협동하여 매우 활력적인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역동적인 시설-지역사회 상호작용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원예프로그램으로는, 광활한 구릉지대 전원에 시설 입주자가 직접 관리하는 정원(Residents Garden)

을 만들어 다양한 꽃과 나무를 재배하는데, 입주자 중 꽃꽂이 전문가나 식물재배 전문가 출신이 직접 다른 노인들에게 원예 강좌를 무료로 개설하여 안내해 주며 치매나 중풍질환을 가진 노인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활동이 권장되고 그런 취약한 노인들에게는 건강한 노인입주자나 외부 자원봉사자가 주기적으로 시간을 정해 프로그램을 지도한다.

그러나 지역사회 다양한 네트워크의 지원 속에 노인주거시설에 필요한 전문적인 프로그램과 안정된 주변환경이 집중적으로 조성되는 것이 지역주민 생활보호와는 크게 상충되어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많아 이에 대한 보완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필요한 보호조치와 프로그램을 유지하는데 있어 노인시설 지원 방안과 충돌하면서 노인의 여가를 위해 중요한 이동복지 일부분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학교와 운동장과 노인들의 원예활동 정원이 인접할 경우 노인들의 작업시간에는 학생 체육활동이 소음과 위험 때문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스쿨버스에서 어린이들이 내려 길을 건너갈 때 노인들의 승용차가 추월하는 것을 처벌하지 못하고 가벼운 경고에 그치면서 어린이 사고위험이 증대하는 등의 부작용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사례 #5> 동질성 있는 이웃(homeogenous neighborhood)으로 발전시키는 노력

시설 주변에 공장이나 철공소나 비행장이 들어선다면 이 시설은 소음과 진동과 무서운 분위기로 인해 노인들이 외출하기가 힘들고 창가 베란다에 앉아 전망을 감상하기도 힘들 것이다. 지금 이곳 주변은 숲과 꽃과 실개울이 있는 공원이 있고 가족들이 드나드는 게 보이는 빌라단지 가 있으며, 학교와 교회가 있고 이웃들도 대부분 조용하고 전원적인 낭만을 즐기는 비슷한 부류의 사람이다. 그래서 외출하여 길에서 누군가를 처음 만나도 다들 정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가 있다. 주기적으로 시청 지역개발 담당자와 지역 유지들이 찾아와 노인입주자 의견을 청취하면서 이 시설에 조화를 이루는 비슷한 이웃환경이 조성되도록 관리한다(Weed市 Retirement Village와 Shell Point 영업책임자 면담내용중 공통부분 요약정리).

<사례 #6> 노인들과 아이들이 서로 미워하는 일이 생긴다

노인들 시설이 여저다 한두 곳에 있으면 다들 참고 지낼 텐데 워낙 많이 모여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유지하다보니 노인들과 아이들이 서로 미워하고 두려워하는 일이 자주 생긴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야구나 축구를 하다가 공이 날아가 노인시설 꽃밭에서 평화롭게 일하는 할머니를 위협하여 노인들이 공을 돌려주지 않아 아이들이 모여서 울고 보채는 일이 많다. 그리고 시설 입구

아파트 단지 앞에 학교차가 어린이들을 내릴 때 모르고 그냥 그 옆을 추월하는 노인아파트 승용차를 경찰이 벌금을 부과하거나 정지시키지 못하고 예의를 갖추며 지도하다 보니 노인아파트가 어린이 통학의 가장 큰 위협이 되기에 별도의 제도 인력이 필요하다(Weed市 Retirement Village와 Wellington on the Lake市 Villa 단지, Fort Myers市 Shell Point 영업책임자 면담내용중 공통부분 요약정리).

3. 다양한 계층 노인들간 교류

노인들이 평소 다양한 계층 노인들과 어울리며 친교활동을 하는 것 역시 노인주거관리에 중요한 일이다. 도시 주민의 절대다수가 노인일 경우 소득, 교육수준, 살아온 지역 등 매우 상이한 배경을 가진 다양한 노인계층이 있는데 서로 대립하지 않고 화목하게 교류하게 하는 것 역시 노인들 자신은 물론 지역사회 다양한 네트워크가 지원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노인밀집도시는 온난한 기후와 여가, 의료 및 문화생활 조건이 노후생활에 적합하여 타지역으로부터 영구 이주하는 노인과 겨울 몇 달 동안 휴양단지에 체류하는 계절형 이주 노인도 많아 배경이 서로 다른 다양한 노인들이 주거시설과 지역사회에 공존한다. 이러한 다양한 계층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시설을 방문하거나 혹은 시설에서 외부로 나와 서로 소통하는 것이야말로 노후 정서안정의 중요한 과제다(Florida Senior Zone Association, 2008). 본 연구에서 나타난 교류는 크게 외부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시설을 방문하거나 혹은 시설거주 노인들이 외부로 나와 서로 교류하도록 다음과 같이 다양한 지원 네트워크가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 지역사회 저소득층 노인의 주거시설 출입

자전거 통행로와 산책로(Sidewalk)가 잘 관리되어 장거리 이동이 편한 플로리다 Fort Myers와 Sun City Center 市 경우, 시설 외부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저연령 노인들로 하여금 주거시설에 들어가 봉사활동이나 부업을 하도록 장려하는 사업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바, 특히 수천명 규모 주거단지에 거주하는 노인들중 일상생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60대 후반-70대 초반의 건강한 지역사회 저소득층 노인들이 방문하여 여러 가지 자원봉사와 유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시에서 추진하는 노인일거리사업(Senior Job Market Program)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말벗, 식사 동행, 세탁, 청소, 간병 등 다양한 유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며 이들 돌보미들에게는 소양교육과 셔틀버스 제공 상담 등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정책을 중요한 노인복지사업으로 유지하고 있다.

노년돌봄 서비스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과 받는 측이 상하

관계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보람이나 즐거움으로 이어지는 양방향성의 특성을 가지며 노년기에 삶의 의욕과 의미를 가져다주고 심리적으로 긍정적 보상을 받아 자신이 가진 심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한경혜·김주현, 2005). 우리나라 경우 유급형 노노돌봄의 대표적인 형태로는 2005년부터 복지형의 노인일자리아로 추진하고 있는 노노케어사업을 들 수 있는데 유휴 노인인력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뿐 만 아니라 건강한 노인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방문하여 필요한 일을 함으로서 소외된 노인들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확충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고 유급 도우미로 활동하는 노인들은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사회참여 등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6).

미국 플로리다주 2개 노인밀집도시에서는 수천명 수용 규모 노인주거단지 인근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노인들을 노인주거단지에서의 일상생활보조 서비스나 정원관리, 골프장 관리 등 공공복지형 노인일자리로 활용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적극 권장하는 조례안이 확정되어 지원되고 있는데, 주거단지 노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저소득 노인의 선발과 교육, 서비스 문제점 보완 관리 등 매우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이렇듯 외부에서 이주하여 휴양단지에 거주하는 부유층 노인들과 오랫동안 지역사회에서 살아온 저소득층 노인들이 서로 교류하고 도움을 주고받도록 하는 정책의 가장 큰 장점은, 그 소도시에 거주하는 유휴 노인인력을 필요시에만 활용함으로써 상근직원 활용에 비해 노인주거단지 서비스 비용이 크게 절감되는 것, 제공하는 노인에게는 소득창출과 규칙적인 활동을 통한 건강관리, 그리고 시설거주 노인으로서 이직율이 낮아 오랫동안 친숙해지는 노인과 교류하면서 저렴하면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된다. 하지만 단점도 많아 여러 가지 개선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가장 큰 단점은, 저소득층 노인이 도보나 자전거로 먼 거리를 이동하여 시설을 방문 할 경우 과도한 이동으로 인한 피로감이 크다는 것, 저소득층 노인이 부유층 노인들을 방문하여 활동하면서 빈곤한 자신과 비교되어 사기저하를 초래하는 것, 또한 이웃이나 친구가 돌봐주는 것이 아니고 임시거주 오두막에서 자전거나 도보로 오는 노인들이 대부분이라 연령과 관심사, 생활양식에 있어 서로 유사성이 적어 친근감이 결여되고 거부감이 생기는 점, 전혀 이는 사이가 아닌 관계에서 선택할만한 여지가 없이 일방적으로 정해주는 조건에서 시작하기에 서로 익숙해지고 적응하는데 큰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 도움제공자의 입장에서는 받는 노인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없고 서로의 생활리듬이나 가치관, 기호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하거나 격려하는 상호 정서지지가 어렵다는 점 등이다.

<사례 #7> 나날이 익숙해지며 친척이 찾아오는 느낌이 든다
시설에 거주하며 골프를 주로 치는 부유한 노인들에게 이웃 mobile home에 사는 어려운 노인이 찾아와 청소와 세탁을 해주면 처음에는 옷차림세도 남루하고 궁색한 기색이 들어 뭔가 의심스럽고 좀 부담스럽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지만, 적응기간이 지나면 부지런하고 꾸준하고 헌신적으로 하기에 점점 정이 들고 날이 갈수록 모든 것에 익숙해져서, 받아들이는 분들 대부분이 이전 친척이 찾아와서 보살피는 것처럼 친근해진다고 말한다(Suncity Center 노인주거단지 영업직원 면담내용 요약정리).

<사례 #8> 부유층을 매일 접하고 비교하며 비판적인 생각에 빠진다

시설에 들어와 일을 하기 전에는 비슷한 처지 노인들과 오렌지 농장에서 일하며 아주 즐거운 나날을 보냈는데 골프를 즐기고 여행을 자주 다니는 부유층 노인들 시종드는 일을 하면서 같은 노인인데 누군 저렇게 부유하고 난 왜 이러는가 하는 비판적인 생각이 들어 우울해 하고 결국은 말없이 한동안 안 나와서 큰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간혹 있다(Suncity Center 노인주거단지 영업직원 면담내용 요약정리).

2) 시설거주 노인의 외부노인 지원

입주노인이 많은 대형 주거시설 경우 건강한 노인들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들과 교류하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고찰되고 있다. 플로리다 Fort Myers市 Shell Point 시설 경우, 입주 노인 수는 약 3만 5천명에 이르며 70여개의 주거 건물과 골프장, 요트장, 식물원, 교회, 박물관, 은행, 우체국 등 일반적인 중소도시에 있어야 할 대부분 문화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으며 가정의학 병원도 있다. 수만명 노인들이 생활하는 거대한 공간이므로 일거리가 많아 건강한 노인들로 구성된 입주자 자치모임이 구성되어 주차관리, 정원관리, 매점 및 식당운영, 관광객을 위한 가이드 활동, 방문자가 체류하는 호텔 운영 등 실제 시설운영에 도움이 되는 인력을 입주자 중에서 자치활동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건강한 노인들은 외부로 나가 지역사회에 있는 소규모 요양원이나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봉사활동도 함으로써 시설에서 항상 마주하는 입주자 외 자신과 매우 다른 상황에 있는 노인들을 위해 봉사하면서 자부심을 느끼고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등 정서활동을 활발히 하도록 시설-지역사회 결연활동을 지자체와 노인단체, 그리고 시설 운영팀이 계도하고 관리한다. 그런 일을 수행하는 노인 입장에서는 책임과 권한이 부여된 정당한 역할이 생기면서 자부심을 갖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업활동도 하게 되는 장점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시설에 거주하는 변호사 출신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나 저렴

한 변호업무를 해주기도 하고 목사출신 노인이 외부에 나가 고령노인을 위한 목회활동을 하는 등 매우 다양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시설거주 부유층 노인들의 외부 출입은 멀리 떨어진 곳에 노인 스스로 운전을 해서 가야 하면서도 여러 사람들하고의 약속 하에 이루어지는 전문적인 일하기에 몸이 아프거나 개인사정으로 못 가면 도움을 받는 쪽에서는 큰 불편을 겪고 심지어는 시설에 항의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 큰 단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례 #9> 명예로운 일이지만 잘못되면 개인이 아닌 시설의 책임이 된다

변호사나 성직자로서 멀리 떨어진 마을에 일이 생길 때 마다 찾아가 사건 변호도 해주고 목회도 해주고 심지어는 임종관리까지 해주시는 분들이 있다. 그런 분 한두 분으로 인해 시설의 이미지가 좋아지고 노인 자신도 매우 자부심을 갖고 명예로 생각한다. 하지만 몸이 아프거나 가족이 찾아와 못가는 날에는 사건 변호가 차질이 생기거나 가난한 동네 교회 예배가 중단되어 시설로 문의 전화가 오는 등 결국 시설전체의 책임이 된다(Fort Myers市 노인주거단지 Shell Point 영업직원 면담내용 요약정리).

4. 정보관리

노인인구비율이 매우 높아 복지시설과 노인활동프로그램이 많은 도시는 자원봉사관리, 인권보호, 사고예방 등 노인 권익과 안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망을 구축하고 관리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 만성질환과 일상생활 불편을 겪고 있는 의존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기에 노인들의 귀중품과 현금관리, 학대방지, 미끄러짐이나 음식물 섭취 장애 사고가 매우 민감한 과제가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노인보호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관련된 단체에서 서로 공유하고 보완하는 일을 시, 경찰, 사회단체, 의료기관, 학교 등에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사회적 지원망이 잘 구성되어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노인 시설에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의 음주관련 행동, 약물복용, 폭력성향, 불량모임 활동 등을 학교와 상담기관, 경찰들이 정보를 공유하여 자원봉사자 정밀 신원조사(Advanced Reference Check) 정보망을 구축하여 참고하는 것으로 시 자원봉사자 관리지침에 나타나고 있다(Weed City Chamber of Commerce, 2003-2006: Association of Ontario Active Adult Life Style Retirement Community, 2006). 그러나 이러한 엄격한 자원봉사자 정보관리는 부유층 거주 시설에서의 봉사관리에는 매우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자원봉사 의욕을 저하시켜 저소득층 독거노인 말벗이나 집안 일 보조 등 매우 일상화된 봉사까지도 위축시키는 것이 취약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설거주노인 인권보호를 위한 정보관리는 특히 캐나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시 노인단체와 경찰관들이 주관하는 無寬容운동(Zero Tolerance Campaign)이 대표적인 사례다.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이 학대받았다고 시민단체나 감독기관에 불평하면 자세히 조사하여 노인에 대한 무례한 행동이나 관리소홀이 반복적으로 있었음이 확인될 경우 기관에서의 자체징계나 벌금 등 일정수준의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으로서 노인들이 많은 곳이기에 노인관리에 있어서의 엄격한 기준이 훼손되면 나쁜 전례로 남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인 감시기능이다. 다만, 노인밀집도시라는 특성으로 인해 일반적인 기준보다 더욱 가혹하고 범위가 아닌 것에 대해 과거 정보를 참고하여 불이익을 준다는 점에서 시설 근무자들로 하여금 노인들과 함께 외출하거나 운동을 하는 등의 적극적인 동행을 위축시키는 단점이 나타나고 있다(CARP, 2010).

<사례 #10> 시설노인은 좋으나 소외된 노인은 더욱 소외된다

자원봉사자를 엄선하는 취지는 좋다. 그리고 부유층 노인들을 위한 고급 시설은 보안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다. 하지만 누구나 쉽게 다가가 매일 자주 도와주어야 하는 홀로 사는 노인들은 찾아오는 사람들이 위축되는 것이 큰 불편이라고 본다(Suncity Center 노인주거단지 영업직원 면담내용 요약정리).

<사례 #11> 서비스 책임감은 높아지지만 프로그램 적극성은 줄어든다

노인을 소홀히 하는 일에 대해 그냥 지나치지 않고 뭔가 경각심을 주는 zero tolerance는 노인을 돌보는 일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노인의 불평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하여 직원이나 봉사자들이 식사수발이나 청소, 목욕 등 중요한 서비스에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꼭 필요한 일이 아닌 일에 나섰다 불평을 들으면 손해라는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외출 동행이나 여가프로그램에는 적극성이 줄어들고, 안 하면 안 되는 일에만 조심스럽게 하게 하는 단점이 있다(Fort Myers市 노인주거단지 Shell Point 영업직원과 Wellington on the Lake市 Villa 단지 영업책임자 면담내용중 공통부분 요약정리).

5. 시설의 개방

본 연구 대상 노인밀집도시들은 온난한 기후와 대형 휴양시설로 인해 대도시로부터 유입되는 부유층 노인들도 많고 예전부터 살아온 사람들은 지역주민들이 노인이 되면서, 이주해온 부유층 노인과 오랜 기간 거주한 저소득층 노인들이 양극화된

특성을 지닌다. 그리고 대도시가 아니라 농촌지역에서 점진적으로 성장한 소도시이기에 농촌 지역사회 특징인 이웃과의 상호부조와 정서교류 습성이 지역주민들에게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그렇기에 이곳 노인주거시설은 지역사회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자신들과 공유하는 편의시설이고 가정에서 충족될 수 없는 복지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제2의 가정이다(Association of Ontario Active Adult Life Style Retirement Community, 2006). 일반적으로 농촌지역은 상호부조의 전통적 의식과 생활양식이 강하게 남아 있는 공동사회이기에 복지시설과 교류하고 지원할 수 있는 자원의 양적 크기는 작지만 지역사회 참여의 질적 수준은 높다(이병록, 2005). 그러한 원리가 작용하면서 노인밀집 소도시의 대규모 노인주거시설은 시설내 수영장장과 숲속 자전거 코스와 같은 스포츠 설비, 온실과 도자기 교실 등 여가 설비, 심지어는 시설내 의무실 등 다양한 자원들이 지역사회에 개방되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시설내 소규모 가정의학 병원을 함께 운영하는 대규모 시설 경우, 투약관리나 재활치료, 혹은 집중적인 간호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만성질환 환자는 시설내 노인은 물론 지역사회 노인들도 단기간 입원이 가능하고 외래진료는 항상 가능하도록 시에서도 적극 홍보하여 시설의 수입측면 뿐 아니라 지역사회 의료관리에도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개방의 장점은 외부인 출입이 활발하여 고립감이 줄어들고 지역사회라는 느낌이 노인입주자 정서에 도움이 되고, 지역사회와 친밀감이 형성되어 자원봉사 및 외부지원이 증대되고, 시설이용이 극대화 되어 지역사회 복지시설 기능 일부가 충족되고, 외부인의 활발한 출입으로 시설 분위기가 활력적이 되고, 시설내 서비스가 공개되기에 직원들이 노인을 대하는 태도나 서비스 질이 크게 향상되고, 시설내 일부 프로그램(예: 골프장, 수영장, 식당, 매점, 선물가게)의 외부인에 대한 매출로 수익이 증대되는 점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반면 이러한 개방의 단점도 나타나는바 우선은 청소나 소독 등 시설 청결관리 비용이 높아지고, 치매노인 회상요법 프로그램과 같은 전문적인 경영 노하우가 노출되고, 일부 노인 입주자들이 사생활 방해를 불평하는 점 등이 나타나고 있다.

<사례 #12> 지역사회구성원이라는 느낌을 주지만 비밀이 노출되고 관리비용이 많이 든다

우선은 이곳 수영장장 헬스장이 잘 되어 있어 외부사람들이 많이 오니 어린아이를 동반한 가족들도 많이 와서 여기가 고립된 시설이 아니고 자연스런 지역사회 일부분이라는 좋은 느낌을 받는다고 노인들이 좋아한다. 그리고 외부인을 대상으로 하는 매점이나 박물관 등에서 여기 노인들이 일하면서 약간의 부수입도 올리고 지역사회에 있어야 할 설비를 여기서 쉽게 이용할 수 있어 시로부터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다양한 지원을 받아서 좋다. 하지

만 우리 시설에서 힘들게 개발해온 원에프로그램이나 회상요법, 미술치료 등 중요한 노하우가 외부에 공개되기에 수시로 프로그램을 바꾸고 청소하고 관리하는 비용이 많이 든다(Fort Myers市 노인주거단지 Shell Point 영업직원과 Wellington on the Lake市 Villa 단지 영업책임자 면담내용중 공통부분 요약정리).

V. 논의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캐나다의 노인밀집도시 지자체와 사회단체, 그리고 주민들이 서로 협력하여 노인주거시설 운영을 지원하는 다양한 활동들의 장점과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 시설 근무 실무자와의 면담을 통해 고찰하였다. 대도시와 농촌의 교량적 위치에서 노년기 휴양생활에 적합한 온난한 지역에 노인들이 지속적으로 이주하면서 대규모 노인주거단지가 형성되는 도시에서 과거부터 살아온 지역사회 노인들이 새로이 이주한 부유층 노인들의 주거시설이 공존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노인밀집도시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목표를 갖고 이주하는 건강한 노인들의 목표 지향적 장소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통합이 결여되고 빈부격차를 실감하여 고립감을 더욱 느끼게 되는 역기능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캐나다 노인밀집도시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서 고찰된 핵심사항, 그리고 그러한 결과가 한국적 현실에서 고려되어야 할 논의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표 2> 참조).

첫째,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노인인구비율이 현저히 높은 도시는 우선적으로 지역주민, 복지기관, 외부 방문자들 모두가 노인들을 배려하고 지원해야 함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노인구역(Senior Zone)을 조성하여 홍보자료에 명시하고 안전요원들이 집중적으로 활동하도록 하는 정책기조를 유지한다. 그리고 노인관련 사업장 권장에 의해 저렴하고 효과적인 노인복지 서비스가 제공되고 유입되는 노년층도 많아지는 등 노인복지 기능상의 효과가 크다. 반면, 지역 활력이 저하되며 사회적 다양성과 통합성이 크게 위축되는 단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 노인인구비율에 있어 도시는 낮고 1단위 僻地는 매우 높은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반면 비율이 높으면서도 문화편익시설이 보편적으로 갖추어진 소도시기능은 아직 고찰된 바 없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 농촌지역에 노인들을 배려하는 특별한 구역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인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도시기능 설정이 선행되어야 함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미국과 캐나다는 노인주거단지 주변 지역사회환경이 시설 노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나아가 시설이 지역사회의 중요한 편의시설로 자리매김하여 상호작용이 활발해지도록, 유해환경을 억제하고 입주노인과 주민들이 함께 도우며 살아갈수

<표 2> 미국과 캐나다 노인밀집도시의 노인주거관련 주요 사회적 지원

사회적 지원 과제	주요 활동 사례	장점	개선해야 할 과제	한국 적용에 있어서의 고려사항
노인구역 확대와 관련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회 심의를 거친 조례안으로서 노인공동주택이나 양로시설 주변을 노인구역으로 설정하여 차량통행이나 소음발생 제한 요양시설, 재활시설, 주간보호소, 노인주택, 노인 여가공간, 심지어 장의사 등 노인관련 사업장이 세계혜택이나 부지확보 용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들을 사고로부터 보호 노인복지 관련 산업 집중으로 인한 저렴하고 편리한 노인복지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반적인 사회적 다양성과 통합성이 크게 위축 노인인구비율만 높아 노인복지서비스에 필요한 청소년 자원봉사자 확보가 힘들어 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지역에 노인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도시기능 설정이 선행되어야 함
시설 이웃의 안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주거단지들 중심으로 휴식공원, 노니아파트, 여가용 차량 생활공원, 관광명소 등등 휴양관련 시설이 함께 들어서도록 조정 주택개발 회사와 지역주민, 노인단체 등과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Urban Plan 프로젝트 추진 원예치료 프로그램이나 유기농산물 가공단지등을 노인주거시설, 지역사회 주민, 노인단체, 영농회사, 학교 등이 공동으로 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주거단지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고 노인밀집도시로서의 고유한 정체성이 유지됨 주거단지가 지역사회의 중요한 편익시설로도 활용됨 지역사회와 시설노인들이 협동하여 매우 활상호작용을 유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주거시설에 필요한 전문적인 프로그램과 안정된 주변환경이 집중적으로 조성되는 것이 지역주민 생활보호와는 크게 상충되어 갈등이 생김 노인의 여가를 위해 아동복지 일부분을 포기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가 협소하고 인구밀도가 높기에 노인주거시설 주변에 또다른 휴양시설이나 공원을 개발이 곤란함 저출산 시대를 맞이하여 이동보호가 급선무인 시점에서 아동보호가 훼손되는 노인주거편익은 사회적 호응을 얻지 못함
다양한 계층 노인들간 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 외부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저연령 노인들로 하여금 주거시설에 들어가 봉사활동이나 부업을 하도록 장려함 입주자 자치모임이 구성되어 주차관리, 정원관리, 매점 및 식당운영, 관광객을 위한 가이드 활동, 방문자가 체류하는 호텔운영 등 실제 시설운영에 도움이 되는 인력을 입주자 자치활동으로 운영 건강한 시설 노인들은 외부로 나가 지역사회 요양원이나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휴노인인력을 필요시에만 활용함으로써 서비스 비용이 절감되고 동료노인으로서의 친근감이 형성됨 시설입주자 외 자신과 매우 다른 노인들을 위해 봉사하면서 자부심도 느끼고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등 정서활동을 활발히 함 책임과 권한이 부여된 정당한 역할이 생기면서 자부심을 갖고 부업활동도 하게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소득층 노인이 도보나 자전거로 먼 거리를 이동하여 시설을 방문할 경우 과도한 이동으로 인한 피로감이 큼 저소득층 노인이 부유층 노인들을 방문하면서 빈곤한 자신과 비교되어 사기저하를 초래함 서로의 생활리듬이나 가치관이나 기호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상호 정서지지가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주거시설 대부분이 대중교통이 열악하고 지역사회와의 교류가 소원한 오지이며 시설노인 대부분이 무연고나 극빈층이기에 시설노인과 지역사회와의 상호교류는 매우 힘들. 대도시 거주 학생이나 직장인들의 결연방문 등 외부에서 시설로 지원하는 근본적인 틀 안에서의 교류를 고려해야 함
정보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보호에 필요한 중요 정보를 市, 경찰, 사회단체, 의료기관, 학교 등에서 공동으로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거주 부유층 노인 서비스 질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궁극적으로 자원봉사의욕을 저하시켜 저소득층 독거노인의 일상적인 봉사를 위축시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이 불편하여 지원자가 적은 노인복지시설 봉사를 더욱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고려되어 과거 봉사성과 중심으로 해야 함
시설의 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영장, 자전거 코스, 의무실 등 다양한 자원들이 지역사회에 개방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인 출입이 활발하여 고립감이 줄어들고 지역사회 구성원이라는 자부심이 생김 지역사회와 친밀감이 형성되어 자원봉사 및 외부지원이 증대됨 시설이용이 극대화 되어 지역사회 복지시설 기능 일부가 충족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나 소독 등 시설 청결비용 증가 프로그램 노후가 노출되고, 일부 노인들이 사생활 방해를 불평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농촌은 혈연관계의 상호부조 전통이 강하기에 물적 측면에서는 운동장, 주차장, 정원, 회의실, 강당, 목욕탕 등의 지역사회 제공을 확대하고 전문기능 측면에서는 진료, 물리치료와 같은 의료서비스의 제공, 직원의 지역사회단체에 대한 지원활동, 재가복지서비스의 제공, 상담서비스의 제공 등을 제공함

있는 조건을 조성한다. 그리고 시설을 중심으로 노인주거단체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고 지역 정체성이 유지되도록 휴식공원, 노인가파트, 여가용 차량 생활공원, 관광명소 등등 다양한 휴양관련 시설이 들어서도록 조정한다. 하지만 아동 보호조치와 노인시설 지원 방안이 상충하는 단점이 크기에 노인은 물론 지역 아동이 함께 존중되는 사회적 풍토가 결여된다. 한국은 우선 국토가 협소하고 인구밀도가 높기에 노인주거시설 주변에 또 다른 휴양시설이나 공원을 개발하여 방대한 공간을 차지하기는 힘들 것이며 저출산 시대를 맞이하여 아동보호가 급선무인 시점에서 아동보호가 훼손되는 노인주거편익은 더욱 곤란하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미국과 캐나다 경우 시설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계층 노인들이 서로 소통하도록 외부 저소득층 노인들이 주거시설에 들어가 봉사활동이나 부업을 하도록 하고, 반면 시설 노인은 자치모임이 구성되어 외부로 나가 지역사회 요양원이나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봉사하면서 자부심도 느끼고 정서활동을 활발히 하도록 계도하고 관리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외부 교차적 방문과 교류는 활력증대와 정서함양의 장점도 크지만 빈부격차 비교에서 오는 사기저하, 관심사와 생활양식 유사성이 적어 친근감이 결여되는 것, 그리고 일반적으로 정해주는 조건에서 시작하기에 적응하는데 큰 어려움이 따르는 등의 단점도 많아 개선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 한국은 노인주거시설의 80% 이상이 대중교통이 매우 열악하고 지역사회와의 교류가 소원한 오지이며 시설노인중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무연고 극빈층 비율이 일반 노인보다 높아(보건복지부, 2008) 시설노인과 지역사회와의 상호교류는 매우 힘들 것이기에, 이러한 상호작용보다는 대도시 거주 학생이나 직장인들의 절연방문등 외부에서 시설로 지원하는 근본적인 틀 안에서의 교류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넷째, 미국과 캐나다는 귀중품과 현금관리, 학대방지, 서비스 질 향상 등을 위해 자원봉사자 정보망을 구축하여 관리하는 바, 부유층 시설에서의 봉사관리에는 매우 중요하지만 봉사의 욕을 저하시켜 저소득층 독거노인 말벗이나 집안일 보조 등 매우 일상화된 봉사까지도 위축시키고 시설 근무자들로 하여금 적극적인 동행을 위축시키는 것이 취약점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경우 아직 대학생과 중고생의 봉사활동에 있어 복지시설 비중이 약하고 거리청소 등 사회개방형 성격이 강하며 봉사성적 인정범위도 미국과 캐나다에 비해 적은 점을 감안할 때(작은자의 집, 2006), 미국과 캐나다 수준의 엄격한 봉사자 정보관리는 교통이 불편하여 지원자가 적은 노인복지시설 봉사를 더욱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경찰이 주관하는 신원조사보다는 다소 융통성 있는 기준이 고려되어 과거 봉사기관의 평가를 기초로 하는 성과관리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대규모 노인주거시설은 시설내 여가 설비와 의료시

설 등이 외부에도 개방되어 외부인의 활발한 출입으로 활력이 증대되고 지역사회 기여가 되고 시설 서비스가 공개되어 직원들의 태도나 서비스 질이 크게 향상되지만, 시설 청결비용이 많아지며 전문적인 경영 노하우가 노출되고, 시설 노인들의 사생활 방해등단점이 개선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경우 노인주거시설의 70% 이상이 대중교통과 지역주민 거주가 매우 적은 면지역에 소재한 50~100명 수용 소규모라는 점을 감안할 때(보건복지부, 2008) 노인시설의 외부개방은 적용가능성이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다만, 이러한 농촌소재 노인주거시설의 영양사나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들이 인근 독거노인을 방문하거나 시설로 초대하여 목욕이나 식사동행 등 일상생활 일부분을 보조하는 등의 교류는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기대된다. 한국의 지역사회 특성상 도시지역은 개개인의 목표지향적인 이익사회이며 농촌은 혈연관계인 주민이 많고 노동공유 활동도 일반화된 공동사회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공동사회는 이익사회에 비해 혈연, 이웃, 친구관계에 의한 상호부조의 전통적 가치가 강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와의 관계가 매우 원활할 수 있다(박태영, 2003). 그러므로 주로 농촌지역에 분포된 우리나라 노인주거시설을 주민과 공유하는 것은 한국적 특성을 반영해 좋은 결실을 맺을 잠재력도 매우 크다. 이러한 실천은 크게 물적 자원과 전문 기능의 지역사회 제공으로 구분하여(野口定久, 2003) 물적 측면에서는 운동장, 주차장, 정원, 회의실, 강당, 목욕탕 등의 지역사회 제공을 확대하고 전문기능의 측면에서는 진료, 물리치료와 같은 의료서비스의 제공, 직원의 지역사회 단체에 대한 지원활동, 재가복지서비스의 제공, 상담서비스의 제공 등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논의점을 한국 농촌지역 노인복지 서비스 전달에 직접 반영하기에는 복미와 한국간 토지개발이나 이용의 제도, 문화와 전통가치관, 인구분포, 문화편익 시설 이용가능성 등에 있어 차이가 현저하기에, 보다 다양한 각도에서의 정책적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미국과 캐나다는 유럽 대도시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이 원주민 거주 산악이나 농촌지역에 정착하면서 농촌과 도시간 가치관이나 문화편익의 차이가 절충되는 도시화 형성과정을 겪은 반면, 우리나라는 농촌을 이탈하여 도시로 집중되는 사회문제가 작용하면서 농촌과 도시는 크게 공동사회와 이익사회로 구분되는 특성이 강하다(이병록, 2005). 공동사회는 전통적인 지역사회로서 농어촌지역에 해당되며, 이익사회는 산업화의 발전에 따라 脫農현상이 더욱 강조되어 도시화된 지역을 의미하는 바, 농어촌지역은 복지시설과의 교류에 있어 객관적인 조건, 즉 인적·물적 자원은 적은반면 상호부조 등 전통적인 가치가 강하게 남아 있어 오히려 노인복지시설이나 노인집단과의 인적교류가 더욱 활발할 수 있다. 그러나 도시지역은 문화편익면에서 객관적인 조건은 상대적으로 유리하지만 지역주민의 개인주의 성격이 강하고 상호부조의 가

치는 적어서 복지시설이나 취약집단에 대한 정서적 지지기반이 약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지지 자원의 都農간 차이는 토지이용과 인구밀집 규모에서 우리나라와 유사점이 많으며 오랜 역사를 지닌 일본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 바, 노인단체나 복지시설과 지역사회 연대감, 시설운영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의지, 그리고 복지교육 및 홍보 협조는 농촌이나 농촌인접 소도시에서 더욱 높은 성향을 보이고 있으나 시설설비 및 기능의 지역사회제공은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老人Home이라는 명칭하에 중소도시에서 주로 위치하며 노인입주자들과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왕래하며 보다 가정에 가까운 정서를 재현하는 시설이 증가하고 있다(한국노인복지학회, 2009).

토지이용이나 인구밀집 면에서 북미지역과 동북아시아의 중간적 성격을 띠는 독일 경우 농촌과 도시가 전통가치관과 문화편의 접근성이 양극화 되지 않으면서도 농촌형 공동체의 식과 가치관이 잘 반영된 노인복지사회적지원 사례를 우리나라 노인복지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와 농촌의 중간적 특성으로 지니며 지역과의 유대를 잘 활용하는 노인복지시설로는 알텐하임(altenheim)과 알텐본하임(Altenwohnheim)이 있다. 알텐하임은 특별히 간호는 필요하지 않으나, 스스로 자립하여 가사를 돌볼 수 없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로서 대도시와 농촌의 중간지역 중소도시에서 도시와 농촌의 장점을 반영하여 운영하는 시설이다. 즉, 노인들이 농촌지역 주민과의 긴밀한 협동으로 전원생활과 외출동행을 하면서 또한 주민들은 시설내 의료장비나 인력의 도움도 받고 여가시설도 공유하며 지역과 시설이 공존하는 방식이다. 알텐본하임(Altenwohnheim)은 자립가능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주거위주 시설로, 다른 무엇보다 함께 산다는 의미가 강하다. 즉, 경제적 능력도 있고, 건강상태도 양호한 노인들이 가급적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된 노인용 아파트가 많은데 그중 전원적 분위기를 원하는 노인들 경우 농촌인접 소도시에서 설립된 연립주택이나 아파트에 살면서 유급 시설관리와 일상생활보조를 지역주민에게 의뢰하고 노인들은 지역사회 봉사활동도 하면서 상호교류를 증대시킨다(김미주, 2009). 따라서 미국과 캐나다 노인밀집 도시에서 고찰된 다양한 노인주거관련 사회적 지원사례를 한국에 참고함에 있어, 일방적인 반영보다는 일본과 독일 등 보다 한국과 공통점이 많은 사례를 심층 연구하여, 다양한 절충과 조화의 목표아래 한국 농촌지역 주민의 상호부조와 정서교류의 전통적 가치관을 활용하고 노인시설의 편의성을 주민이 공유하도록 하는 상호보완적 방향을 견지하는 정책방향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VI. 제 언

이상에 정리한 결과고찰 및 논의, 그리고 한국적 현실을 반영한 정책적 함의를 토대로 한국 농촌과 인근 읍지역에서 전개해야 할 효과적인 노인주거관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노인인구비율이 높고 특히 독거노인이 많은 농촌지역 면 단위 마을을 지역특성과 정서에 맞는 노인주거관리 시범마을로 정하여 사회적 지원망을 조성하는 사업이 단계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아직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노인밀집 도시 개념도 희박하고 노인구역으로 지정된 사례도 없기에 본격적인 노인관리 구역을 운영하는 것은 무리지만 소규모 시범마을을 정하여 농촌형 노인공동주택이나 공동작업장 등 지역특성과 정서를 반영한 초보적인 사업을 시작으로 한 점진적인 진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노인인구비율이 매우 높고 독거노인이나 결식노인 등 취약 노인이 많은 군에서 어르신 공경 시범마을이나 충효마을을 지정하여 병원직원 봉사자와 대학생이 주축이 되어 주거생활개선 및 가정간호 시범사업을 한 사례에서 보듯이(홍성균, 2006),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활용한 노인주거생활 지원이 좋은 성과를 내고 있어 고무적이다. 또한 농림부가 주관한 은퇴자마을 프로젝트에서처럼(농림부, 2006; 농촌공사, 2006) 소규모이긴 하지만 한국 농촌 현실을 바탕으로 노년층이 모여 살며 공동의 생산과 여가를 보내는 시범 집합주거 공간이 개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시범마을 노인들에게 대도시 아파트단지과 자매결연을 통한 농산물 집단 유통망을 구성하도록 지원하고 독특한 농촌생활양식과 자립능력을 토대로 도시인과의 유대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대도시 부유층 노인그룹과 시범마을과의 결연사업을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시니어클럽등에서 추천하여, 직거래망 활성화 및 전원생활 공유 등 상호교류를 통한 소득증대와 정서증진을 지원하는 등 충분한 가능성이 예상된다.

둘째, 현재 범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都農 통합형 도시계획안을 보완하여, 면단위 마을에도 노인밀집 소규모 문화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이 추가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농촌 통합형 도시 계획(강동진, 1999; 박재홍·이상대, 2000)은 군청소재지 중심부에 있는 읍을 중심으로 산업설비와 문화시설 및 조정 확충을 통해 인근 輿地 주민의 유입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는 바, 이러한 방안은 영농위주 활동에만 전념해오다 노년기에 접어든 연령층에게는 이주할 경제적 여력이나 생활적 가능성이 고려되지 않은 취약점을 안고 있기에 노인인구비율이 60%를 넘어서는 농촌 면단위 마을 노인들의 근본적인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없다. 또한 농촌과 도시생활의 조화를 이루는 완충적 기능이 없기에 대도시에서 전원생활로의 변화를 기대하며 이주하고자 하는 연소노년

층에게는 전원생활의 기회도 없으며 도시생활의 연장이라는 점에서 목적기능이 결여된 단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都農 통합도시 계획에 있어, 본 연구에서 고찰된 소도시의 노인보호구역설정 예를 참고하여, 노인들이 오랫동안 살아온 면단위 마을에 소규모 주거단지 및 문화근린시설을 조성하는 절충안을 추가하여 보완하는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농촌에서 도시로 승격한 도농통합형 도시의 경우, 그 인접한 면과 리에 신형 소규모 근린구역과 새로운 노인공동생활 주거단지를 유도하고 대도시에서 이주하는 연소노년층의 기술과 자본력을 활용하여 공동체를 구성하는 방안 등을 구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하여 형성된 노인밀집 주거단지에 고령자 취업에 적합한 중소형 노인공동작업장을 확대하도록 노동부와 보건복지가족부 및 농업관련 기관들과 협동하여, 도시출신과 농촌출신 노년층 중 활동력이 강한 계층의 기능과 경험 등의 장점을 모두 반영한 새로운 복합적 패러다임의 주거단지가 형성 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경로당활성화 사업과 老老-돌봄 서비스 사업이 연계되어 추진되는 노인복지사업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2001년부터 전국적으로 추진되어온 경로당 활성화사업은 주로 서울과 광역시를 중심으로 추진되었고(평화종합사회복지관, 2006; 보건복지부, 2008), 농촌지역 경로당은 농촌지역 리단위당 평균 1개 이상이 2000년도 이후 지어진 신축건물로 존재하여 그 물리적공간 자원은 매우 좋으나 이용자가 적어 휴관상태인 곳도 많고 소수 이용자들은 활발한 여가 프로그램에 호응하지 않고 마을 공동취사나 의료진 봉사방문 공간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평화종합사회복지관, 2005; 평화종합사회복지관, 2006) 노인들의 일상적인 여가활용이나 정서교류 등 주거공간으로서의 사회심리적 기능이 매우 저조한 상태다. 2007년 이후 농촌지역에 추진되어온 老老-돌봄 서비스사업(보건복지부, 2006)은 가족이나 친척이 하는 가족지인형이나 이웃에서 용돈벌이로 하는 일시적 보호에만 그치고 대도시로부터의 적극적 자원봉사형은 농촌에서의 숙식이 힘든 이유로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윤순덕·채혜선, 2008). 농촌은 지역사회 구성원들 간의 오랜 유대관계망에 기초한 공동체 문화가 아직 남아있고, 이러한 공동체적 특성이 노인들의 수발과 방문자에 대한 호의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바(한경혜·김주현, 2005), 이러한 장점을 살려 대도시로부터 조기 퇴직한 중년층이나 저연령 노인들이 농촌을 방문하여 경로당에서 지역 고령 독거노인들과의 여가활동이나 공동식사, 말벗, 주거환경개선 등 자원봉사 및 유급 노노사업을 적극적으로 동참하면 농촌지역 노인들의 삶도 크게 개선되고 대도시 유희 저연령 노년층의 활동과 부업에도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학교와 직장에서 시행되는 봉사활동 평가가 노인들이 밀집한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에는 더욱 배려되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고교나 대학의

봉사는 의무시간 확인 위주며 직장인들의 봉사는 부서간 단합이나 친목활동으로 권장되고 있는 수준인데(평화종합사회복지관, 2006), 앞으로는 노인인구비율이 매우 높고 독거노인이거나 만성질환 노인이 많은 취약지구에서 봉사활동하는 학생들에게 반영비중을 다소 높이고 직장인들의 인사평가에 고려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취약한 농촌지역 노인에 대한 봉사활동을 더욱 권장하는 실천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농촌지역에 운영되는 양로시설과 노인공동생활가정의 주거공간이 점진적으로 지역사회에 개방되는 장려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노인복지시설 중 치매나 중풍 등 중증환자의 장기요양 관리가 목적이 아닌 주거용 시설은 양로시설 경우 2007년 384개소에서 2010년 285개소로 감소하여 시설수와 입소정원에 있어 매년 10% 이상 감소하지만, 그러한 노인주거시설의 90% 이상은 2000년대 이후에 건설된 양호한 설비의 주거공간이며 70% 이상이 면단위 농촌에 존재하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10). 주거생활목적의 복지시설이 농촌지역에서 크게 저하되는 점을 활용하여 노인들의 주거 및 여가 공간으로 점진적으로 활용된다면 노인복지시설과 지역사회와의 교류로 인한 주민참여가 증대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운영주체 사회복지법인은 오래 전에 설립되어도 건물신축이 최근에 이루어져 오랫동안 운영해오며 자원봉사자관리가 정착되고 설비가 좋은 농촌지역 단일 주거복지시설(예: 양로원이나 노인공동생활가정)을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결실이 많은 농촌 독거노인들에게 일시적으로 주거공간과 식사 및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지원하는 지자체의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섯째, 농어촌이나 소도시 외곽 노인생활시설은 왕래하는 사람이 적은 겨울에는 사회로부터 격리됨으로써 노인들의 정서가 위축되고 활력적인 교류가 감소하는 문제점을 피할 수 없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관 재가복지센터 혹은 노인교실을 담당하는 가정방문 서비스 및 여가프로그램 담당 전문가들을 이 지역에 파견해야 한다. 또한 겨울방학을 이용한 청소년 특별방문 프로그램 등이 집중적으로 기획되어 이러한 통합시설에 제공되도록 하는 활성화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녀의 교육과 결혼을 지원하며 오랫동안 함께 살아오면서 자녀에 대한 정서적 의존도가 높은 한국노인의 특수성을 감안해 볼 때(장인협·최성재, 2004), 자녀들이 농촌 인접지역 노인가구나 노인전용 주거공간에 가급적 자주 방문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손자녀가 함께 방문하여 일정기간 함께 생활하게 함으로써, 노인주거생활이 통합된 사회적 분위기에 보다 유사한 정서적 환경으로 근접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특히 사회적 접촉이 크게 떨어지는 겨울철에 자녀와 손자녀가 방문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며 노부모와 친밀한 정서교류를 즐길 수 있도록 별도의 유료 가족생활관을 만들고, 방학기간동안 학령기 손자녀가

체류하며 조부모와 정서교류를 할 수 있는 세대간 공유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민간에 권장 보급하는 복지시설 관리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농촌 및 인접 소도시 노인복지 사업과 다른 복지분야와의 연계방안에 관한 심화된 후속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의 고찰과 논의는 노인에만 제한되어 장애인복지시설 등 다른 분야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분석결과를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노인복지와 관련된 많은 서비스는 사회복지공동모금과 푸드뱅크등 포괄적인 사회복지 체계하에서 이루어지고 이러한 지원을 총괄하는 단체도 노인에만 국한된 사업자보다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진행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관리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현외성, 2006: 한국노인복지학회, 2009), 노인관련 사회적 지원은 타 분야 지원의 위축을 동반하는 등 연관성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노인인구비율이 높고 위기에 처한 노인들이 많은 지역에 대한 지원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지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타 복지서비스의 이전이나 재정규모 수정 등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고 따라서 사회복지 전반적인 연계방안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한 효과적인 노인지원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인접지역에서 노인주거복지시설이나 기타 노인공동생활을 원하기 때문에(이찬영, 2007) 기존 주거지 인근지역에 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여 노인들이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불편을 최소화해야 하며 또 한편으로 분배와 안정을 통한 사회통합의 역할로서 사회복지가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사회복지 서비스의 접근에 계층 및 지역간의 차이가 적어야 한다(이병록, 2005). 또한 노인들에게 다양한 사회적지원을 수행할 재가복지단체는 최근 노인복지서비스가 수용에서 재가서비스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에서 많은 후원단체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므로 이러한 잠재력이 풍부한 도시에 편중되고 있기에(한국노인복지학회, 2009), 농촌지역 노인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는 재가복지기관의 기동성과 타 복지분야 서비스와의 조정 등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가 불가피하다. 특히 도시와 농촌 사이에 복지서비스의 접근성에 있어 상대적 차별성이 항존하여 특히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여가시설 및 의료복지시설 등 도시지향적 서비스 혜택에서 소외현상이 일어나는 반면, 농촌주민들과 직접 관련이 없는 수용시설들이 농촌지역에 주로 입지하며 사회복지관과 의료복지시설과 같이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농촌지역에 매우 취약하므로 앞으로 사회복지 서비스의 지역적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농촌지역 노인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 기관의 지역별 분포,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의 지역간 편차, 지역주민의 복지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이용자의 수요도, 전문의료인력과의 거리, 자원봉사자의 이동 거리 등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이를 토대로 각 지역별로 실천가능한 합리적인 노인 지원방안이 구상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동진(1999). 도농통합시의 도시경관 관리대상 추출 : 경북 경산시 사례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17(4), 87-106.
- 김미주(2009). 일본과 독일의 노인복지. 한국노인복지학회 학술총회 논문집 사회 노인복지정책 총서 시리즈 제3권. 도서출판 공동체.
- 김영복(1999). 유료노인 주거시설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우(2000). 도시공원의 질적인 개선방안. 호남대학교 논문집 Vol.21, No.2 16-31.
- 노동연구원(2002). 고령화시대의 노동시장 정책.
- 농림부(2006). 은퇴자마을 조성사업 및 전시회 계획. 실무자 2006년도 춘계 워크샵 자료집.
- 농림수산식품부(2009). 농촌정책분야 자료 http://www.mifaff.go.kr/USR/WPGE0201/m_231/DTL.jsp
- 농촌공사(2006). 전원마을 페스티벌. <http://www.seniortown.org>
- 류영미(2004). 실버타운에 대한 노인의 인식도 및 서비스 욕구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범(2002). 중고령자 노동시장. 서울: 노동연구원.
- 박영옥(2001). 중·장년층의 노인복지시설 입주의식 및 선호도에 관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여성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용수(2004). 실버타운의 입주선택 배경과 마케팅 전략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재현(2000).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실버타운 개발에 관한 탐색적 연구.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종천(1999). 실버타운의 전망과 개발방향에 관한 연구. 광주대학교 경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재홍·이상대(2000). 도농통합도시의 계획수립 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2(1). 155-164.
- 박태영(2003). 『사회복지시설운영론』, 서울: 현학사.
- 보건복지부(2005). 노인보건복지 국고보조사업 안내.
- 보건복지부(2006-2008). 노인복지시설 관련 자료.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가족부(2009). 정책마당 분야 자료 <http://www.mw.go.kr/front/main.jsp>
- 보건복지가족부(2010-2011). 전국노인복지시설현황

- <http://library.mohw.go.kr/SkyBlueOpen/>
- 신동원(2006). 농촌형 노인생활시설에 대한 수요자 조사에 관한 연구. 한서대학교 정보산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양순미·홍숙자(2003). 농촌노인의 독거·동거 가구형태가 심리적 고독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6)**, 129-139.
- 양순미(2004). 농촌노인의 사회역할 모델과 사업화방안 개발 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16**.
- 양순미·임춘식·오윤자(2007). 농촌노인의 우울에 관련변인이 미치는 효과. 노인복지연구, **36**, 139-158.
- 윤순덕·채혜선(2008). 농촌노인의 사회적 老老돌봄의 문제점에 대한 사례연구. 노인복지연구, **40**, 31-54.
- 윤종선(1994). 우리나라 노인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병록(2005). 노인복지시설 입지조건에 따른 지역사회 관계의 차이. 노인복지연구, **30**, 53-73.
- 이인수·김인중(1998). 탑골공원 방문노인의 활동양상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5**, 195-220.
- 이인수(2007). 21세기 실버타운의 전망. 서울: 도서출판 대왕사.
- 이인수(2009). 21세기 노인복지론. 서울: 도서출판 대왕사.
- 이찬영(2007). 지역노인주거시설의 설립과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한서대 정보산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작은자의 집(2006). 돌방상할 대처 사례. 사회복지법인 예방전도회 부설 양로시설 <작은자의 집> 연례보고서.
- 장인협·최성재(2004). 노인복지론.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전창미·박희진(2004). 노인의 특성에 따른 환경친화적 노인 단지 주거계획 요소. 노인복지연구, **26**, 215-235.
- 조추용(2005). 유료노인주거복지 산업의 현재와 미래. 한국노인복지학회 **2005** 추계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5-28.
- 통계청(2007). 가족 및 인구동태자료 검색.
<http://www.nso.go.kr/>
- 평화종합사회복지관(2005). 전북 담수물예정지역 노인복지프로그램 개발용역 연구보고서.
- 평화종합사회복지관(2006). 서울시 경로당 실태조사 개발용역 연구보고서.
- 한국노인복지학회(2009). 노인복지 개론. 서울: 도서출판 공동체.
- 한경혜(2002). 미국의 농촌노인을 위한 지역사회보호 지원프로그램.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3(2)**, 77-86.
- 한경혜·김주현(2005). 농촌마을의 환경특성과 노인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사례연구,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6(1)**, 73-88.
- 현외성(2006). 경남 남해안 농어촌지역 실버타운 개발모형 연구--경남 고성군 지역 실버타운 수요조사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33**, 301-332.
- 홍성균(2006). 『장곡면 어르신 공경 시범마을 사업 사례』. 2005년도 사회복지사업 보고서
- 野口定久(2003), "福祉施設と地域社會", 牧里每治 編, 地域福祉論(住民自治と地域ケア・サービスのシステム化), 放送大學教育振興會:79-88.
- AARP(2006). 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 Bimonthly Periodicals Series 2006.
- AARP(2006). 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 <http://www.aarp.org/>
- Alpert, L. & Gatty R. (1969). Product Positioning by Behavioral Life-Style, *Journal of Marketing*, April, 123-124.
- Association of Ontario Active Adult Life Style Retirement Community(2006). Land Lease Housing Guides for 55-74 Active Adults.
- Atchley, R.(1988). *Social Forces in Later Life*.Wadsworth Publishing Co.CA,U.S.A.
- Burkhauser, RV, Butrica, BA, and Wasylenko MJ(1995). Mobility patterns of older homeowners: Are older homeowners trapped in distressed neighborhoods? *Research on Aging*, **17**:363-384.
- CARP(2006-2010). Canadi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 <http://www.carp.ca>
- Canadi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2008). Monthly Newsletter of Series 2008, Edition of Ontario State.
- Chevan, A(1995). Holding on and letting go: Residential mobility during widowhood. *Research on Aging*, **17(3)**:278-302.
- Elder Home Finders(2009). 미국 노인주거 서비스센터 <http://www.elderhomefinders.com/living/senior-living-facility.html>
- Florida Senior Zone Association(2008). 노인보호 서비스 연합회 노인보호규정. <http://www.wtsp.com/news/local/story.aspx?storyid=32755>
- Lawton MP.(1982) **Competence, environmental press, and the adaptation of older people**. In: Lawton MP, Windley PG, Byerts TO, editors. Aging and the environment: Vol. 7, Theoretical approaches. 1st ed. Springer; N.Y.: 33=59.
- Oak-Knoll Retirement Village(2006). Guides for Residence Life in Oak-Knoll, Paradise, CA
- Ontario Association of Active Adult Life Style Retirement Community(2006). Guides for Retirement Life for Future Residents.

- Pynoos, J.. and Regnier, V. (2000). **Housing the Aged**, London; Elsevier Press.
- Rokeach, M.(1973). *The Nature of Human Values*. New Work: Free Press.
- Sergeant, J. and Ekerdt, E.(2008). Motives for Residential Mobility in Later Life. *International J. of Human Development*. 66(2). 131-154.
- Senior Outlook(2009). 미국 55세이상 고령자 정보센터 정기 간행물.
<http://www.senioroutlook.com/orderamagazine.asp>
- Senior Resource(2006). 캐나다 노인정보센터.
<http://www.seniorresource.com/ageinpl.htm#place>
- Suncity Center(2005). 미국 플로리다 주 통합형 노인생활시설 단지 Suncity Center.
http://suncitycenter.com/index_files/TheCommunity.htm
- Weed City Chamber of Commerce(2003-2007). 미국 캘리포니아주 Weed市 상공회의소.
<http://weedchamber.com/visit/activities.php>
- Wells, W. D. & Tiger, D. J. (1971). Activities, Interests & Opinions, *Journal of Advertising Research*, 11 (August), 27-35.

- 접수 일 : 2011년 03월 15일
- 심사 일 : 2011년 04월 04일
- 심사완료일 : 2011년 06월 21일